

##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정지혜†      정남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성인 남녀 427명(남성 135명, 여성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거절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외로움 척도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분석과 검증에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실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한 결과, 거절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모형이 검증됐다. 즉, 거절민감성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 주요어 : 거절민감성, 정서표현, 정서표현 양가성, 외로움, 매개효과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 정지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4270, E-mail: jnmsk@hanmail.net

##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각 발달 과정마다 가족, 형제, 또래, 선생님,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려는 욕구는 인간의 매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동기체계이다(Baumeister & Leary, 1995). 타인과 맺는 관계적인 욕구는 개인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욕구가 좌절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과 함께 정서적 불편감을 야기하게 된다(Katja, Esther, Charlotte, & Babette, 2011). 즉, 개인의 관계 욕구 충족 실패는 인간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이 느끼는 대표적인 정서는 외로움이다(Shearer & Davidhizer, 1994). 외로움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중의 하나로써 슬픔이나 불안을 수반한다(Rubenstein & Shaver, 1982). 인간은 성장 발달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타인과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수용, 지지, 만족감, 사랑 등의 다양한 느낌을 제공 받음으로 욕구를 충족한다. 반면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부정적 변화 또는 상실경험은 인간적인 접촉과 친밀감 유지를 방해하여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Shearer & Davidhizer, 1994). 더군다나 개인주의와 성공주의, 경쟁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환경구조는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전국 대학 학생생활연구소협의회가 대학 신입생 1만 477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외로움, 불안, 우울, 무기력, 분노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중 외로움이 72.4%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9. 6. 26). 또한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가장 불행한 순간으로 가정불화,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라고 보고하였다(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이처럼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데, 외로움이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Cacioppo, Hughes, Waite, Hawkley, & Thisted, 2006; Zawadzki, Graham, & Gerin, 2013). 외로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들로는 사회적 관계나 인생에 대한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고(김정운, 2007) 외로움의 정도에 따라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자살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이유정, 2011). 또한, 외로움은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섭식장애, 구역(nausea), 비만, 두통, 피로, 면역 기능 저하 등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Heinrich & Gullone, 2006). 이 외에도 외로움을 대처하기 위한 행동으로 술이나 약물, 흡연 등의 중독행동 또는 신체적으로 위험한 자해나 자살시도, 우울과 분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범죄행동 및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Rubenstein & Shaver, 1982).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외로움이 인간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정서임을 나타내는 반면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외로움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인을 밝힘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외로움은 단지 사회적 접촉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이유정, 2011), 개인이 느끼는 관계 만족도, 지각된 사회적 수용도와 같은 질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Cutrona, 1982; Bernardon, Babb, Hakim-Larson, & Gragg, 2011). 사회적 관계망이 작은 사람들이 모두 외로운 것은 아니며(Fischer & Phillips, 1982), 친구의 수가 외로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연구결과(Jones, 1982)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관계의 빈도보다 외로움에 더 좋은 예측 변인이 된다고 밝혔고(Cutrona, 1982; Jones, 1982), Wheeler, Reis와 Nezlek(1983)은 사회적 관계의 양과 외로움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걱정 수의 타인과 상호작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수용되고자 하는 주요한 기본 욕구가 있으며(Baumeister & Leary, 1995; McClelland, 1987; Rogers, 1959; Sullivan, 1953),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욕구는 활성화 된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러한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거절 가능한 상황은 거절을 피할 때 일어나는 정서의 종류와 무관하게 외로움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또한,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절 경험 이후에 외로움이나 불안 혹은 우울에 영향 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Baldwin, 1994; Cooper, Shaver, &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 김진선(2009)은 이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수용 받기 원하는 수준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수준 간에 불일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생각과 그에 따른 불안 및 분노가 증폭되면서 외로움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양과 상관없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친밀감으로 안정성 있게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Levy, Ayduk, & Downey, 2001).

Downey와 Feldman(1996)은 위와 같은 관계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거절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거절민감성이란 한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소소하고 모호한 단서에도 예민하게 거절로 지

각하며 거절에 대해 과잉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다(Downey & Feldman, 1996). 여기서 '중요한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은 전반적인 사회상황 또는 대인상황에서 느끼는 사회불안, 대인불안과 차별된다(이복동, 2000). 유아기 때 무반응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절을 경험하면 이후에도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 예상하게 되는데, 중요한 타인에게 거절될 것이라 예상될 때 방어적 반응으로 불안 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거절 민감성의 핵심이다. 거절될 것에 대한 이러한 방어적 반응은 거절 단서에 대해 과잉 경계를 촉진하고, 심지어 악의 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쉽사리 의도된 거절 신호로 지각한다. 타인의 행동을 거절행동으로 부호화하는 이러한 인지적-정서적 정보처리의 단계를 거치면 분노, 적대감, 질투, 지지의 철수 등의 정서적, 행동적 과잉반응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다(Downey & Feldman, 1996). 즉, 자기 방어적 행동으로 발생한 반응이 오히려 관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자신이 거절이라고 지각한 사실이 실제 상대의 거절이 아닐 수 있는데 이 때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거절이라 지각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실제로 거절을 불러 일으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낳을 수 있다(Downey, Freitas, Michealis, & Khouri, 1998).

이처럼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여 타인과 깊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관계패턴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내면에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김진선, 2009), 이 두 요인은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박지윤(2003)에 따르면 거절에 대한 예민함은 거절을 회피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하게 하고 그로 인한 거절회피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그 욕구를 채울 기회를 스스로 잃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더 큰 욕구를 만들어내며, 더 커진 욕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거절민감성은 관계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현재 가진 사회적 관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London et al., 2007)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주관적 관계 만족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절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 맺기를 거절하거나 대인관계 속에서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이는 높은 거절민감성이 자의든 타의든 외로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London 외(2007)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 하는데, 거절이 예상되어 불안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사회 불안과 철수를 느끼는 경향이 있어 거절에 대한 예기불안이 외로움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밝혀졌는데, 김진선(2009)의 연구

와 박현지(2012)의 연구에서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두 변인간의 직접적 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경로에 있는 중간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인 간의 중간 기제를 밝혀내는 경험적 연구는 의미 있게 활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거절민감성은 어떤 경로를 거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까? 여러 요소들이 있겠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용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두 변인 사이에 작용하는 큰 요소 중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는 수용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Ayduk, May, Downey와 Higgins(2003)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데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하고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며 높은 거절민감성은 대인관계 내 갈등에 대한 불안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게 됨을 밝혔다. 김나영(200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밝혀졌는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경향성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극된 높은 거절민감성의 영향으로 인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혜련, 2011), 이는 자신이 경험한 것 특히 그 안에서 발생한 정서 그대로를 수용 받는 경험의 부재로 인해 정서를 드러냈을 때 수용 받을 것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겪는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개념에 초점 맞추었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뜻하며(King & Emmons, 1990),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예를 들어 자신의 정서표현이 공감 받지 못하여 거부당하거나 비웃음만 당하게 되는 등의 결과에 대한 방어로 촉발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타인에게 줄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적절하지 못한 정서를 표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 현재 타인과의 관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최해연, 민경환, 2007).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소통이 필요하며(이유정, 2011) 그 과정에서 정서적 필요를 채우게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자기표현 즉,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억제하여 심리 내적으로 정적 감정은 적게 경험하는 대신 부정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Gross & John, 2003; Gross & Levenson, 1997) 친밀한 대인관

계가 적으며 타인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Gross & John, 2003) 대인관계에서 감정적인 소외와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 Levenson, 1988; Ben-Ari, & Lavee, 2011).

특히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서표현의 갈등을 자주 겪으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행동패턴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과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며 실제로 이런 행동패턴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이득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표현의 역제가 피상적 관계에 머물게 하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해결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거절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Rusbult, Johnson, & Morrow, 1968b; Rusbult, Bissonnette, Arriaga, & Cox, 1998). 즉, 정서표현의 억제와 갈등의 보상으로 친밀감을 얻는다고 해도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겪고 해결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므로 결국은 진정한 친밀감을 얻을 수 없다(Joiner, Coyne, & Blalock, 1999). 유주현(2000)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 정서표현 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친구지지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지각한다고 밝혔으며,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간 민감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강소영(2009)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더 낮다고 보고하였고 윤희옥(2010)과 이유평(2011)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영향을 미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상황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정서표현의 갈등을 겪을 것이며,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 외로움을 겪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외로움은 상담 장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거절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이 다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외로움,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서표현의 갈등을 나타내는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연구 그리고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함께 고려하여 외로움을 설명하려는 시도 모두 국내외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된다면 거절민감성의 경향성을 지니고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는 내담자에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상담에서 다루기 어렵고 변화에 대해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거절민감성보다 좀 더 현실적인 개입이 가능한 정서표현 갈등을 탐색하고 다루는 상담을 통해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변인의 관계성과 세 변인을 한 맥락 내에서 이해하며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거절민감성, 정서표

현 양가성, 외로움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과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승인받은 후(과제관리번호: P01-201304-SB-09-00), 연구 참여에 자발적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뒤 설문을 실시했으며 모든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70명이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된 설문지 43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427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연령 평균은 22.99세(SD=3.66)이며, 성별 분포는 남자가 134명(31.4%), 여자가 291명(68.1%)이었다.

### 측정도구

#### 거절민감성 척도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제작한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RSQ)를 이복동(2000)이 번안한 척도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더욱 원문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수정 번안의 과정으로는 새롭게 수정 번안한 척도를 2인의 영어능통자에게 검수 받은 후 각각의 척도를 사용하여 총 200명에게 예비연구를 실시, 신뢰도 및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여 더 높은 통계적 수치를 나타낸 새 척도를 채택하였다. 이 척도는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초기의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a)요구의 결과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되는 정도와(거절불안), (b)요구가 수용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즉, 거절당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거절예상)의 두 차원을 Likert 6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Downey와 Feldman(1996)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고, 한국의 이복동(2002)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김향선(2011)의 연구에서는 거절불안이 .89, 거절기대가 .84, 전체 척도는 .90으로 보고됐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내적합치도 값을 도출하였고,

거절불안 .91, 거절기대 .87, 전체 척도 .92이었다.

###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AEQ)을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타당화한 후 최해연(2008)이 요인분석 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AEQ-K)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측정하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13개 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1개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해연,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하위 척도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88, 관계 관여적양가성은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값은 .91이었고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88,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82으로 나타났다.

### 외로움 척도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에 의해 개발된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를 Russell, Peplau와 Custrona(1980)가 RULS(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로 개정하였고 김교현, 김지환(1989)이 우리문화에 맞게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RUL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외로움을 단일 차원으로 보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대한 측정으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Russell 외(198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김교현과 김지환(1989)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보고됐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신뢰도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산출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각 잠재변인들의 지표들이 단일 요인 모델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했다. 넷째,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chi^2$ 차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chi^2$ 차이 검증과 함께 GFI, CFI, TLI, 그리고 RMSEA를 모두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형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간접효과)가 유의미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방법은 Sobel 검증보다 더 민감하게 매개 경로의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hrout & Bolger, 2002).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거절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외로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총점과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절민감성 총점은 거절불안( $r=.91, p<.01$ ), 거절예상( $r=.76, p<.01$ ) 모두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서표현 양가성 또한 하위 요인 간의 상당히 높은 상관이 존재하여 자기방어적 양가성( $r=.95, p<.01$ ), 관계관여적 양가성( $r=.85, p<.01$ )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1-1	1-2	2	2-1	2-2	3
1. 거절민감성	1						
1-1. 거절불안	.91**	1					
1-2. 거절예상	.76**	.51**	1				
2. 정서표현 양가성	.49**	.51**	.33**	1			
2-1. 자기방어적	.53**	.53**	.39**	.95**	1		
2-2. 관계관여적	.31**	.35**	.15**	.85**	.65**	1	
3. 외로움	.48**	.39**	.51**	.40**	.49**	.17**	1

N=427, \*\*  $p<.01$

거절민감성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49, p<.01$ ),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중 관계관여적 양가성( $r=.31, p<.01$ )보다 자기방어적 양가성( $r=.53, p<.01$ )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며, 거절민감성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 두 하위요인 모두 거절예상보다 거절불안과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데 거절민감성 하위요인들과 외로움의 관계에서는 거절예상( $r=.51, p<.01$ )이 거절불안( $r=.39, p<.01$ )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거절민감성 총점과 외로움의 관계도 유의미한 정적상관( $r=.48, p<.01$ )을 나타냈으며, 정서표현 양가성과 외로움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r=.40, p<.01$ ), 외로움 역시 관계관여적 양가성( $r=.17, p<.01$ )보다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r=.49, p<.01$ )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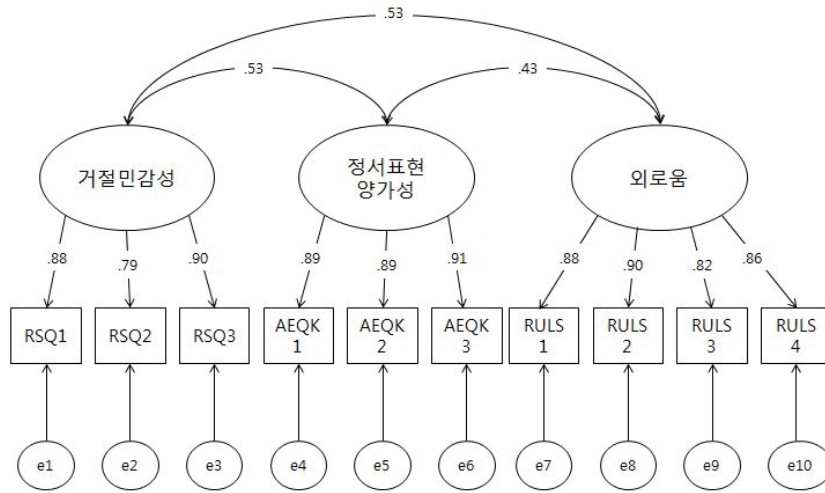
###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3개의 잠재변인과 10개의 측정변인들이 선택되었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로움 척도의 경우 항목묶음(Item parceling)방법으로 나누어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항목묶음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개별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안정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Bagozzi & Edwanrds, 1998; Kisthon & Widaman, 1994). 거절민감성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두 요인을 곱하여 평균을 내는 척도의 계산법을 고려하여 각 상황마다의 두 요인 값을 곱한 18개의 값으로 3개의 측정변인을 구성했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측정모형 검증 과정에서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하여 연구자가 항목묶음을 사용하여 3개의 측정변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측정변인들로 적합하게 조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	df	G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63.822	32	.972	.986	.990	.048



[그림 1] 측정모형

###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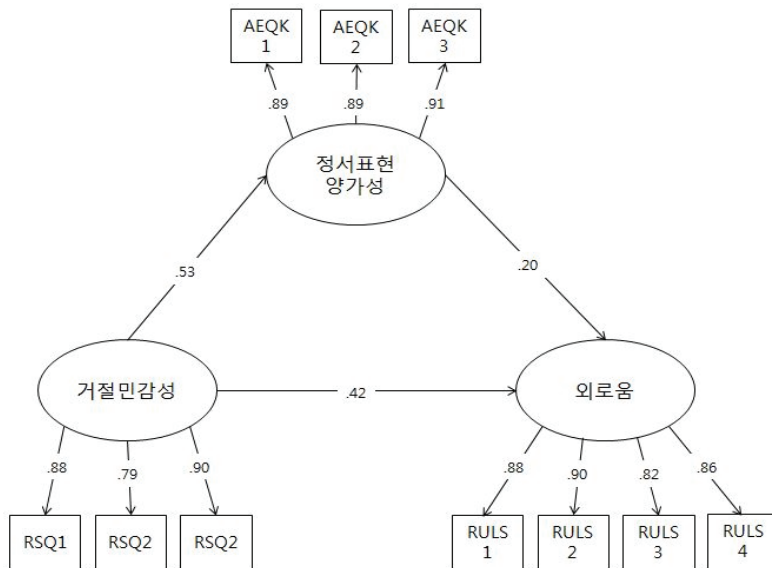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하고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해보았다. 두 모형의 적합도는 아래 표 3에 제시해왔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부분매개 모형 1의 적합도는  $\chi^2(df=32, N=427)=63.822$ ; GFI=.972; TLI=.986; CFI=.990; RMSEA=.048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2의 적합도 역시  $\chi^2(df=33, N=427)=117.325$ ; GFI=.950; TLI=.965; CFI=.974; RMSEA=.077으로 양호했다.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보면, 두 모형 모두 GFI, TLI, CFI 값이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 수준에 속하나, 세 지수 모두에서 모형 1이 모형 2보다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모형 1의 RMSEA 값은 .048로 <.05 범위에 속하므로 좋은 적합도에 속하는 반면에, 모형 2의 RMSEA 값은 .077으로 <.08 범위에 속해 괜찮은 적합도에 속하므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살펴봤을 때, 모형 1이 모형 2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모형1(부분매개모형)과 모형2(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chi^2$	df	GFI	TLI	CFI	RMSEA
모형1 (부분매개 모형)	63.822	32	.972	.986	.990	.048
모형2 (완전매개 모형)	117.325	33	.950	.965	.974	.07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와 더불어 어느 모형이 가장 좋은지를 더 분명하게 비교하기 위해,  $X^2$  차이 검증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두 모형을 비교해 본 결과, 모형 1은 모형 2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X^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하였으므로( $\Delta X^2=53.503$ ,  $p > .001$ ,  $\Delta df=1$ ) 부분매개 모형인 모형 1이 완전매개 모형인 모형 2에 비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모형 1에서 직접경로를 추가함으로써 비록 간명성은 떨어졌지만, 그에 비해 모델의 설명력이 좋아졌으므로, 부분매개를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량을 알아본 경로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종모형(부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외로움에 대한 거절민감성의 경로계수가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하였으며( $\beta = .42$ ,  $t = 7.312$ ,  $p < .001$ ) 이는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외로움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거절민감성의 경로계수가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하여( $\beta = .53$ ,  $t = 10.760$ ,  $p < .001$ )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에 대한 정서표현 양가성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beta = .20$ ,  $t = 3.699$ ,  $p < .001$ ) 이는 정서표현에 갈등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즉,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거절민감성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외로움에, 정서표현 양가성은 외로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검증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2000개의 Bootstrap 표본을 생성하여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정서표현 양가성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거절민감성 → 정서표현 양가성	직접효과 .534	.045	.434	.613
거절민감성 → 외로움	직접효과 .420	.055	.291	.530
	간접효과 .109	.060	.052	.178
정서표현 양가성 → 외로움	직접효과 .204	.059	.093	.329

분석 결과, 거절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직접효과( $B = .534$ , 95% Bias-corrected CI = .434~.613), 정서표현 양가성이 외로움으로 가는 직접효과( $B = .204$ , 95% Bias-corrected CI = .093~.329) 그리고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으로 가는 직접효과( $B = .420$ , 95% Bias-corrected CI = .291~.530)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Bootstrap 분석의 주목적이었던 거절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 $B = .109$ , 95% Bias-corrected CI = .052~.178)의 매개효과(간접효과)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밝혀졌다. 즉,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어 외로움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 집단 간 잠재평균차이를 추가분석 해 본 결과 각 변인들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Cohen's  $d < 2$ )(Cohen, 1988), 본 결과는 남녀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거절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외로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 외로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거절민감성이 감정노출 어려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고(박혜련, 2011) 정서표현 어려움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다는(심경원, 2007)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거절민감성과 외로움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김진선(2009), 박현지(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절민감성이 외로움과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김윤영(2010)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외로움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외로움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이유정(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표현갈등과 외로움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윤희옥(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세 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했다. 모형을 설정하여 세 변인 간의 직접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거절민감성의 경로계수가 정적상관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외로움에 대한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거절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쳐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갈등을 많이 겪으며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쳐 정서표현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한다는 Ayduk 외(2003)의 연구 결과와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감정노출을 적게 한다는 박혜련(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적게 느끼고(박혜련, 2011), 대인관계유능성이 낮으며(김향선, 2011), 대인불안이 높다(김나영, 2009)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이유정(2011)의 결과와 일치하고,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사회적인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며(Emmons & Colby, 1995), 결혼만족도가 낮고(King, 1993), 대인관계만족도가 낮다(강소영, 2009)는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연구모형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평가하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했으며 여러 적합도 지수와  $\chi^2$  차이 검증 결과 연구모형이었던 부분 매개 모형이 경쟁모형인 완전 매개 모형보다 더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어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거절민감성이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갈등하게 하면서 외로움을 유

말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거절을 피하기 위해 억제한 정서표현이 타인과의 진정한 친밀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선행 연구들(Rusbult et al., 1986b; Rusbult et al., 1998; Joiner et al., 1999)과 한 맥락을 이룬다. 또한 남녀 집단 간 잠재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 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므로 본 결과는 남녀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갈등을 겪으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의 내면에 있는 높은 관계 욕구를 고려해 봤을 때(김진선, 2009) 외로움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외로움을 겪는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절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몇 년간 거절민감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재까지 국내외로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거절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Ayduk et al., 2003) 그 맥락과 같이 하여 국내 연구에서도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감정의 노출을 더 어려워하고(박혜련, 2011),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심경원, 2007)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정서표현 연구들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한다고(King & Eommons, 1990)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정서표현과 관련된 더 풍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서표현 갈등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는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 간의 이해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중간 기제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 높은 거절민감성은 한 개인이 관계를 맺는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고통스러운 정서인 외로움을 유발하는데(London et al., 2007; 김진선, 2009; 박현지, 2012) 현재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간 기제를 밝힌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집단 안에서의 소속감과 대인관계가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보다 우위 가치를 점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거절민감성을 경험할 소지가 더 많을뿐더러 외로움이 더 괴로운 정서일 수 있으므로 두 변인 간에 중간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더 필요로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문헌 및 경험 연구가 저조한 연구문제인 거절민감성과 외로움 간의 경로를 밝혀내는 데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그 중간 기제임을 확인하여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중간기제로 밝힘으로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방향과 치료 전략 수립에 유용한 근거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됐으므로 상담 장면에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목하여 주의 깊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탐색 결과 실제 내담자가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에 대한 상담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거절민감성은 애착으로부터 시작되어 한 개인의 성격처럼 자리 잡은 특성적 요소이므로(Kennedy, 1999; 이복동, 2000) 상담 현장에서 효율적인 효과를 주기 어려운 변인인 거절민감성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용하는 중간 기제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이 가능한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중간 기제로 밝힘으로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외로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의 정서표현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마련하였다. 상담자는 그들이 정서표현 갈등을 겪을 때의 사고 과정과 감정 경험 즉 인지·정서적인 부분 모두를 내담자와 함께 면밀히 탐색해봐야 하며 사고와 감정이 흐르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고통스런 감정인 외로움으로부터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특정지역의 대학생과 성인으로 한정지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표집하여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거절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거절민감성이 높거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솔직한 자기개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솔직한 응답보다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항에 영향을 받아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거절민감성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정서는 불안과 분노인데 주로 느끼는 정서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Ayduk, Downey, Tesa, Yen, & Shoda, 1999; Downey a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표현되는 행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연구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요인인 거절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 외로움과의 관계를 밝혀낸 것은 분명 의의가 있으나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거절당했다고 지각했을 때 느끼는 주요 정서와 발현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히는 후속연구는 흥미로운 경험적 연구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넷째, 아동 및 성인 초기에 있는 대상자를 위한 거절민감성 척도는 개발 되었지만 청소년과 성인 초기 이후의 대상자에게 적합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과 성인 초기 이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령과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소영 (2009).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일보 (2009. 6. 26). 대학 신입생 10명중 8명 '정서 불안'. 국민일보, p. 7.
- 김교헌, 김지환 (1989). 한국판 UCLA 고독척도. 학생생활연구, 16, 13-30.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 (2010). 여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만족도: 거부민감성과 외로움을 매개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운 (2007).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선 (2009).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자기 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선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격려의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윤 (2003).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지 (2012).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련 (2011).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감정노출이 이성관계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경원 (2007). 낙관성이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주현 (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옥 (2010). 정서표현갈등과 여고생의 외로움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정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구두발표: 대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0), 24-25.
- Ayduk, O., Downey, G., Tes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high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 245-271.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435-448.
- Bagozzi, R. P., & Edwards, J. R. (1998). A General Approach for Representing Construc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 45-87.
- Baldwin, M. W. (1994). Primed Relational Schemas as a Source of Self-Evaluative Reac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80-403.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n-Ari, A., & Lavee, Y. (201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hift from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o dyadic attribut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2), 277-284
- Bernardon, S., Babb, K. A., Hakim-Larson, J., & Gragg, M. (2011). Loneliness, attachment, and the perception and use of social support in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3(1), 40-51.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Hawkl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 140-15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80-1396.
- Cutrona, C. E. (1982). Transition to college: Loneliness and the process of social adjustment.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91-309). New York: Wiley.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Freitas, A. L., Michealis, B., & Khouri, H. (1998). The self 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Do rejection sensitivity women get rejected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45-560.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Fischer, C. S., & Phillips, S. L. (1982). Who is alone? Soci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small network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1-39). New York: Wiley.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183-200. Avon, UK: Multilingual Matters.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 for Affect, Relationship, and Wei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einrich, L. M., & Gullone, E. (2006).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95-718.
- Joiner, J. T. E., Coyne, J. C., & Blalock, J. (1999). Overview and synthesis. In T.E. Joiner & J.C. Coy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ones, W. H. (1982). Loneliness and social behavior.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38-252). New York: Wiley.
- Katja, S., Esther, H., Charlotte, R., & Babette, R. (2011).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8*, 275-283.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origin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 171-180.

- King, L. A. (1993).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601-607.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Leary, M(Ed.), *Interpersonal rej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 481-506.
- McClelland, D. C. (1987). *Human Motiva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A Study of a Science, 3*, New York: McGraw-Hill.
- Rubenstein, C.,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
- Rusbult, C. E., Bissonette, V. L., Arriaga, X. B., & Cox, C. L. (1998). Accommodation processes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T. N. Bra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74-113). New York: Cambridge.
- Rusbult, C. E., Johnson, D. J., & Morrow, G. D. (1986b). Impact of couple patterns of problem solving on distress and nondistress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44-753.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
- Shearer, R., & Davidhizer, R. (1994). It can be never be the w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 Care Nurse*, 12, 60-6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 Wheeler, L., Reis, H., & Nezelek, J. B. (1983). Loneliness, social integration, and sex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3-953.
- Zawadzki, M. J., Graham, J. E., & Gerin, W. (2013). Rumination and anxiety mediate the effect of loneliness on depressed mood and sleep quality in college students. *Health Psychology*, 32(2), 212-222.

#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Loneliness

Ji-hye Jung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loneliness. For this study, 427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135 male, 292 female) participated in completing the survey composed of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RSQ),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AEQ-K), and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RULS). The final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PSS 18.0 and AMOS 18.0.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all of the variables.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affected loneliness by partial mediation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is impli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not only affected loneliness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did so throug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 Ex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Loneliness, Mediating Effect*